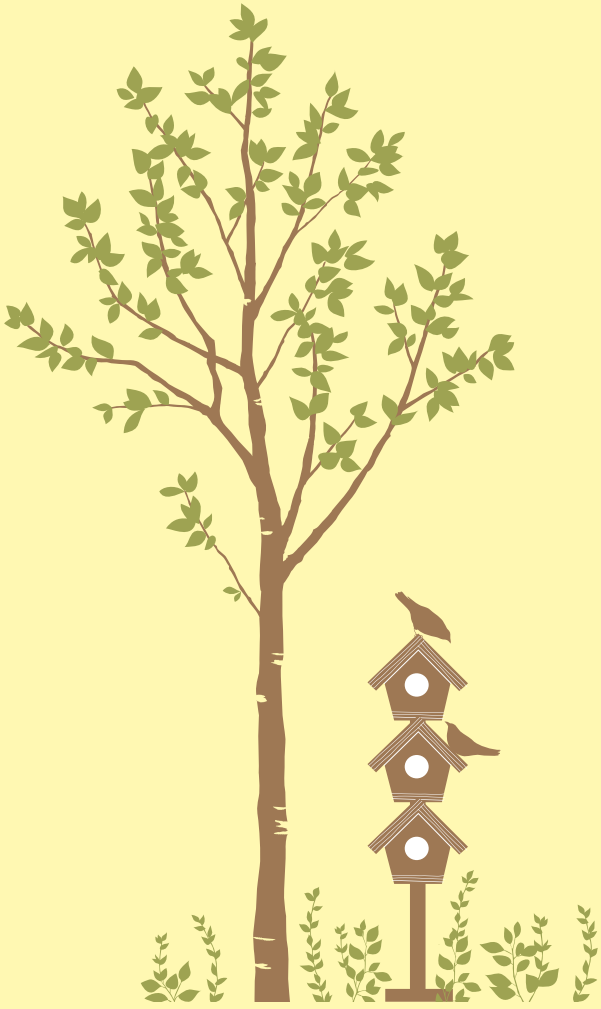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297-000736-01

장애인식이야기
일상 속에서 만나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원장님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립재활원 원장, 강윤규입니다.

국립재활원은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으로서 재활병원, 재활연구소,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가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 시작된 국립재활원의 장애체험교육은 이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점자교육)과 체험교육(휠체어체험, 안내보행체험, 암실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합니다.

흔히 우리는 장애에 대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겉모습이 조금 다를 뿐인데, 그 모습 속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는 5~6가구 당 한 명의 장애인이 존재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누구나 살아가면서 장애를 갖거나, 장애인과 함께 일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 중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며, 그러기에 장애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장애체험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의 소감을 들으면, '불편함'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애의 '불편함'을 느낌으로써 장애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의 소소한 일상을 소개함으로써, 무엇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리고, 이를 통해 장애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 장애인기자단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의 기관 추천으로, 14분이 선정되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솔한 생활 속 삶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동정이 아닌 배려로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같이!'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향한 변화와 개혁'을 수행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국립재활원장 **강 윤 규**



목 차 | Contents

내가 작성한 기사로 바라보기 전태만 /14

건강 찾아 동천과 함께 걸음 최경희 /18

서울대공원을 가다 한미숙 /20

휠체어 장애인으로 지내는 삶 김민정 /23

장애인 보치아 대회 호종민 /27

오늘도 당신 옆에서 삽니다 박양숙 /30

반 걸음의 거리 이승진 /35

해나는 날이 되길 장해나 /39

따뜻한 배려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조은경 /42

조금은 모자라도 괜찮아 노영현 /46

일상에서 장애로 인해 겪는 사례 이향지 /50

청각장애인 공무원으로서 교육 및 공부개선의 필요성 임지선 /53

3번의 도전을 거쳐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 김미래 /58

호산나대학 오사카 자유여행기 신해준 /62



국립재활원 소개

국립재활원은 '모두를 위한 재활, 삶을 바꾸는 재활'을 실현하는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입니다.

미션

장애인이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비전

대한민국 재활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의 재활 전문기관

핵심가치

- 사명을 위한 헌신
- 소통을 위한 협력
- 진화를 위한 혁신

장애체험교육 소개

교육목적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
- 휠체어체험, 안내보행체험, 암실체험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형성

교육신청방법

전화상담

↓

교육일정 조율

↓

신청 공문 발송

↓

교육실시

↓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등록

강의형 이론교육

| 장애인식 개선교육 |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



☑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의 유형과 특징



☑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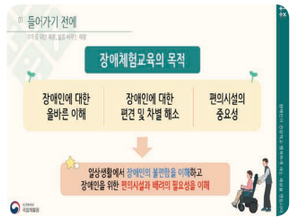


☑ 장애체험 시 유의사항



☑ 소감 나눔







휠체어체험

- 휠체어의 구조
-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
- 장애물 이동 요령

안내보행체험

- 시각장애의 특징
- 흰지팡이 구조 및 사용법
- 장애물 확인 및 이동방법
- 안내자의 역할

체험형 실습교육

암실체험

- 지하철 화재발생 대피법
- 안전장비 탐색 및 착용
- 촉각과 청각 알기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장애인식이야기

내가 작성한 기사로 바라보기

건강 찾아 동천과 함께 걸음

서울대공원을 가다

휠체어 장애인으로 지내는 삶

장애인 보치아 대회

오늘도 당신 옆에서 삽니다

반 걸음의 거리

해나는 날이 되길

따뜻한 배려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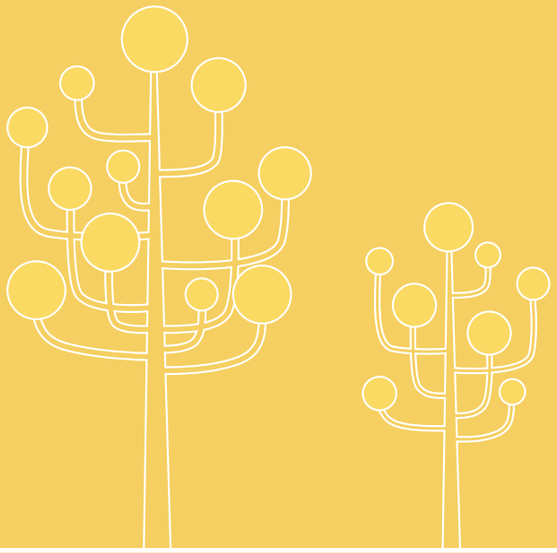
조금은 모자라도 괜찮아

일상에서 장애로 인해 겪는 사례

청각장애인 공무원으로서 교육 및 공부개선의 필요성

3번의 도전을 거쳐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

호산나대학 오사카 자유여행기



내가 작성한 기사로 바라보기

달라진 생각 앞서가는 변화

전태만
지체장애,
'어울림' 장애인 기자단

우리는 살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 장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나 또한 잦은 사고로 병원 생활을 많이 했지만 장애가 생길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1994년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친구랑 장난에서 비롯한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장애인이 되었다. 그런 나는 2년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일상생활을 시작하였다.

사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밥 먹고, 씻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했다. 1996년 당시 나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일반 택시였다. 주로 가는 곳은 병원과 학교였다. 택시비는 나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장애인콜택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지금은 저상버스까지 생겼다. 나의 교통수단은 세 가지로 늘어나고 교통비는 줄면서 이동 범위가 넓어졌다.

2005년에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생기면서 나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나는 2006년부터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장애발생예방교육은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

기까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방문하여 사고로 인한 뇌손상 척수손상 예방교육이다. 20년 가까이 교육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정의에 대하여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내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나의 생각은
'장애인이란 맞춤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어울림센터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나는 나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그 중 이번 주제와 잘 맞는 기사가 있어서 첨부하도록 하겠다.

내가 바라본 시선
버스정류장 이대로 좋은가?

요즘 버스를 타면서 생각해보았는가? 전과 다른 느낌과 시설을...
예전에 버스를 탈 때 우리는 두 세 칸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단이 사라진 버스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버스가 바로 저상버스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탑승 가능한 버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저상버스 보급률 수치는 전국 28.4%, 서울 56.4%, 강원 35.9%, 대구 34.5%, 대전 31.5%, 부산 27.3%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은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향하는 버스의 변화 모습이다.
가끔 버스에서 휠체어를 타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저상버스의 본 기능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예전엔 버스정류장 표시판에 노선표와 버스 번호만 적혀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음성안내 및 전자식 전광판이 생기고 의자와 비가림막이 생겼다.

문제는 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 공간이 좁고 길이 막혀 정류장을 조금 벗어나 승 · 하차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저상버스 확장에 맞추어 이제는 버스정류장도 변화를 같이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버스정류장의 형태는 수평, 수직, 'ㄷ'형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불편한 것은 'ㄷ'형으로 버스정류장이 도로변을 제외하고 모든 면이 막혀있는 형식이다. 뒤쪽과 양쪽 측면이 가려져 시민들은 바람이나 비 등으로부터 보호받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휠체어 장애인은 그 안에 들어가 대기하는 것조차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버스정류장을 벗어나 대기해야 한다.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은 해마다 편의시설 관련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버스정류장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노원역 부근 버스정류장을 조사한 결과 44개 중 한 곳만 장애인 마크에 공간을 확보한 정류장이 있었다. 이처럼 버스정류장은 진화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큰 결심을 해야 탈 수 있는 형태이다.

이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현재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포함하여 버스정류장 이용 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로 알아보자.

김민정씨

버스를 타려고 손을 들었으나, 버스 기사가 못 보거나 그냥 지나쳐 버스를 못 탄 적이 있고, 하차 시 버스정류장에 나무가 있어서 한 번에 하차를 못 했다고 한다.

최경희씨

주로 이용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로 한가한 시간에 이용한다고 했다.

이유는 사람이 많으면 버스정류장에서 탑승을 못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여 한가한 시간에만 이용한다고 한다. 한번은 지인과 같이 탑승하려고 하는데 기사님이 휠체어는 한 대만 된다고 하여 다툰 적이 있다고 한다.

위처럼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다른 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장애인콜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은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편의시설(버스정류장)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변화를 원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 그래야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속도를 낼 것이다.

지난 8월부터 '장애인버스이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 장애인들은 신청을 하여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처럼 중증장애인들은 버스 이용이 어려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버스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를 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내가 작성한 기사를 보듯이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를 하였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은 이용을 하면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여 설치하면 문제점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천재활체육센터 장애 여성 운동모임

건강 찾아 동천과 함께 걸음

운동을 위해 여성들이 뭉쳤다!

최경희
지체장애,
'어울림' 장애인 기자단

저는 태어난 지 8개월 때 소아마비였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26살 때까지 목발을 사용하여 다녔습니다.

그러다 26살 이후 결혼과 출산으로 힘이 빠지게 되면서 휠체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운동량이 줄어들다보니 전체적으로 체중도 늘고 건강도 챙기기 어려웠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헬스장을 알아보았는데, 지하에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아니기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하여 기구들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특히, 장애 여성으로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고 찾기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동천재활체육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체육센터는 수동휠체어를 타고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운동할수있는헬스장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또, 운동 기구 역시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1개월 가입 기준으로 50%할인이 되며 스케이트를 포함하여 특수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 생긴 장애 여성 운동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이름은 '건강 찾아 동천과 함께 걸음'으로 노원에 있는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중증장애인 중년 여성 조합원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조철원 과장님이 기본적인 것부터 기구 사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근력이 약해지는데, 나이가 들면 더 약해져서 근력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력과 유산소 운동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근력운동은 어깨, 가슴, 등 이두 삼두 운동을 기구를 이용해서 하고, 유산소 운동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웨이트장 외곽을 10분 동안 8~10번을 돌고 정리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건강 찾아 동천과 함께 걸음' 모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회원들 모두 열심히 운동해서 앞으로 다른 장애인들도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회 활동을 하면서 동천재활체육센터를 알게 되었고 새로운 여성 운동 모임도 참여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재활을 목적으로 또는 근육 감소 예방, 체중 조절 등 개인에 따라 운동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을 포함한 운동할 수 있는 곳은 현저히 적은 것 같습니다. 주변을 찾아봐도 헬스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 지하에 있으며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상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들어갈 수 있다해도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헬스장들이 많이 생겨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운동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 전문 헬스장이 많이 보편화 되어서 비장애인이 어렵지 않게 가는 것처럼 장애인 역시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닐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을 가다

코끼리 열차 타러 가는 길

한미숙
지체장애,
'어울림' 장애인 기자단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랑거리인 가을 하늘은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힘이 있는가 보다.

내게 장애인이란 명칭을 하나 더 덧붙여 준 교통사고가 있던 날도 하늘은 환상적으로 파랬고 높은 하늘에 드문드문 보이는 흰구름은 몽환적이기까지 했었다.

지금은 2023년도.

한글날 연휴가 끝나고도 집에 머물고 있는 아들을 앞세워 서울대공원 나들이를 하기로 했다. 집에서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일단 매표소에서 장애인은 동행 1인까지 입장료가 무료라고 했다.

다음은 코끼리 열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이는 공원의 내부가 너무 넓은 고로 유모차를 탄 아이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 혹은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이나 또 다른 이유로 다리가 아픈 행락객들을 위해 있는 내부 순환 교통수단이었다.

그런데 코끼리 열차는 그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 접근금지'를 암묵적으로 주창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코끼리 열차를 타러 가는 길은 위의 무지막지해 보이는 계단뿐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인 경우 엄마는 아기를 안고 아빠는 유모차를 접어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진풍경들이 이어졌다.

보행 보조기의 도움으로 그나마 걸을 수 있는 나는

계단을 힘겹게 올랐는데 계단엔 붙잡고 갈 바(손잡이) 하나 설치되어 있질 않아 위험하기까지 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아예 오지 말라는 건가?

동물원에 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원 측 나름의 배려로 전기차(미니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여기엔 장애인들을 배려한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어 휠체어를 한, 두 대쯤 싣도록 되어있었다.

그럼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를 이용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할까?

먼저 코끼리 열차를 타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 위의 그 무지막지한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여기서 잠시 주차장에 있는 전기 카트는 미술관, 캠핑장으로 이어지니 전기차와 혼돈해선 안된다. 이나마도 골프장 등에서 쓰는 전기 카트이므로 휠체어 장애인은 어림없고 편마비 장애인인 경우도 탑승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대부분이 불가능하리라고 보여졌다.

이 전기차에 오르는 계단의 높이도 일반 소형 버스처럼 높고 좁은 것이었다. 차창도 일반 버스의 그것이어서 척수 장애인등 일부의 키가 작은 이들의 경우 창밖의 풍경을 볼 수 없을 듯 했다.

게다가 가는 길도 큰길만을 가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맘 놓고 다 볼 수도 없었다. 그러고도 '장애인용 전기차'를 보유했다고 장애인 단체에 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니.... 장애인 입장을 고려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해 보여 많이 아쉬웠다.

나는 동물원이 너무 너른, 고로 휠체어를 대여하여 돌아다니기로 하고는 그 대여소를 찾았다. 여기서 수동휠체어는 2,000원의 대여료를, 전동휠체어는 3,000원의 대여료(복지카드 지참 시)를 받고 있었다. 입장료는 장애인이라하여 무료의 혜택을 주면서 정작 휠체어는 대여료를 받다니.... 이건 뭔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적어도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장애인에겐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게다가 2,000원을 주고 빌린 수동휠체어는 바퀴 한 쪽이 고장 나 있어 운전자가 마음 먹은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대로 굴러 가는 바람에 운전하는 이가 고생을 해야 했다. 지난 봄에 여기 왔을 때도 휠체어가 제멋대로 가는 바람에 운전하는 사람이 애를 먹었었는데, 설마 또 그것인가?

휠체어 대여료를 받으려면 '정비'를 말끔히 하는 등 관리를 해놓던가...

이건 뭐로 보나 말이 안 된다.

서울대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데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수준이 이래서야... 참으로 걱정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먼저 코끼리 열차를 타러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설치되길 바란다. 다음은 코끼리 열차의 끝부분에 휠체어를 싣고 갈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거나, 아님 최소한 전기차의 차창이라도 '사파리를 드나드는 차'처럼 '통유리' 로 만들어서 창밖의 풍경을 맘껏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휠체어의 대여료와 무료 입장료 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율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도저도 시설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아예 주차장에 있어 캠핑장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다양화하고 약간의 구조를 변경하여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듯도 싶다. 이참에 그간에 접했던 여러 가지의 부당한 것들에 관해 토로해 보련다.

사람들은 때로 준공 허가 등만을 받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실용성하곤 상관없이 했다는 말만 듣기' 위한 편의시설 등을 하곤 한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면 화가 나는 것을 넘어 때론 어줍잖은 배신감마저도 든다. 내가 가장 짜증이 나는 건 경사로이다. 먼저는 계단 폭이 너무 좁거나 짧아서 지나치게 가파른 경우이다. 아마도 공간을 줄이느라 그러했는가 본데... 반대로는 경사로의 길이가 너무 쓸데없이 긴 경우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용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이용하기도 하니, 그 관리소홀은 말해 무엇하리이다. 또 장애인 주차장 등등. 그 장소도 수법도 다양하다. 아마도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만 설계하고 건축하고 운영해서 일 것이다.

우리에겐 분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게 있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벌칙이나 제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가끔은 그 유명무실함에 오히려 더 큰 낙담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시혜하는 입장에서만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모되고 진화되어지는 실정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좀 더 확대된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불편을 고려해 빠르고 정확히 개정이 이뤄지고 그 실행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휠체어 장애인으로 지내는 삶

김민정
뇌병변장애,
'어울림' 장애인 기자단

저는 태어날 때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 한 채 두 달 빨리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지냈고, 이로 인해 오른쪽 운동신경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움직임이 불편해서 지금까지 재활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녀서 학창시절 학교생활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급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손이나 팔을 잡아주면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돌아가며 도움을 주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 관련 복지관이나 센터를 다니며, 기동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워커를 가지고 다닐 때 일반 택시를 타고 다니기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에 운전기사님께서 나오셔서 문을 열어주고 실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폭이 넓어서 워커 바퀴가 빠지거나 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보호자가 함께해서 이용을 해야했습니다.

2002년도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되기 전까지 워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장거리 나들이를 쉽게 다녀오기 힘들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체험도 해보며, 휠체어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된 이후, 전보다는 나들이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찾아 오기 얼마 전 무더운 여름 끝자락에 미술관 관람을 다녀온 저의 일상의 한 페이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 곳에서 휠체어 장애인으로 관람한 느낌과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관람을 다녀오다.

르네상스 인상주의 14세기(1789년)부터 16세기(1874년) 유럽에서 활동하였던 화가들의 그림 속 이야기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창 더위로 지쳐있던 나에게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무렵인 23년 9월 첫째주 토요일(2일) 오랜만에 어머니와 기분전환도 할 겸 관람하고 싶었던 그림 전시전이 있어서 용산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외출하기에 날씨가 화창하고 좋았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하고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이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주중보다 관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어머니와 내가 관람한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은 티켓을 사고, 번호표를 뽑은 다음 50명씩 들어가서 관람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한창 인기가 있는 전시회라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방해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번호표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어폰을 대여하여 그림 하나하나 관람하며 해설도 들을 수 있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몇 장 찍으며 (동영상 촬영은 금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머스 로렌스 경의 찰스 윌리엄 램튼'의 아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레드보이'라는 작품은 강렬한 빨간 색감으로 관람하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했고 비장애인보다 그림을 보는 시선이 낮은 '휠체어 장애인'인 나에게도 한눈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집중하여 2, 3번 더 들으면서 관람한 그림 중 첫번째 그림이였습니다. 그림의 구도와 시선 그리고 색감의 선택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며, 영국의 '최초의 우표(1967년)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한 번 더 시선이 갔습니다.

만약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라디오와 도슨트(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전문안내인)가 함께 있었다면 휠체어 장애인은 제일 앞으로 안내해주어서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 관람에서는 따로 도슨트가 있지 않아서 라디오를 들으며 그림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그림을 오랜 시간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전시회는 르네상스 '인상주의'(14세기~16세기)부터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등 유럽에서 활동한 화가 50인의 다양한 그림과 그림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그림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게 보고 나오니 저녁시간이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잘 못 하지만, 좋은 그림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는 것은 좋아해서 어머니와 오랜만에 행복한 문화 시간을 가지며 기분 좋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림 전시 이외에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전시물들을 시즌별로 다양하게 관람하실 수 있고,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으니, 가을 나들이로 용산국립중앙박물관을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람한 그림 전시회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의 입장료는 장애인과 보호자 1인까지 무료이고 전시기간은 2023년 6월 2일~2023년 10월 9일까지였습니다.

※ 용산 국립중앙 박물관 오시는 길 지하철 기준
경의중앙선 (문산- 용문)

지하철 엘레베이터 이용 시
지하철 4호선 이촌역 1번 출구와 2번출구 방향 '박물관 나들이' 위치

장애인 콜택시 왕복 만육천원 선 (편도 팔천원), 주말 기준

장애인 화장실은 전동휠체어 기준으로 안전바를 올리면 휠체어를 움직이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는 경사로도 잘 되어 있어 휠체어로 편하게 다닐 수 있었고 즐겁게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안팎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 문이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손으로 밀어야

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관람하러 갔을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장애인 보치아 대회

호종민

뇌병변장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저의 장애는 생후 2주 만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걸렸다기보다는 열병이 나서 뇌병변 장애가 약간 스쳤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산부인과에서 낳으신 것이 아니고 예전에 산부인과 선생님을 대신해서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다 보니 낳을 때 잘못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산파 할머니에게 낳고 생후 2주만에 뇌병변 장애가 스쳐갔었으니까... 산파 할머니가 무엇인가를 잘못 건드려서 생후 2주만에 면역력이 떨어져 뇌병변이 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자라서 비장애인들을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걷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표정짓는 것... 다~ 장애로 인해서 비장애인들보다 약간 모자람을 갖고서 자라왔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채로 자랐습니다.

장애인이다보니, 비장애인들이 주가 되는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눈치를 봐야했고 걸어다니는 것, 움직이는 것조차도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세상에서 살아가야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에서는 마치 세 들어사는 사람처럼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억울하고 서러움에 둘러쌓여 자폐성 장애나 조현병에 걸린 사람마냥 혼잣말을 하듯이 꿍시렁꿍시렁대면서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감추며, 삭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는 마치 동물원에 동물을 구경하듯 구경거리가 되니깐, 되도록 그런 자리는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먼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해서 세상에 대해서 한발짝 물러서는 자세로, 세상을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왔기에 세상을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의 시각과 비장애인의 자세로 한번 보고싶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며 저는 현재 극단에서 연기를 하며 연극 무대에 오르고 있고 성우 자조모임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참여했던 보치아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라는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고 헤집어 놓으며 기승을 부리던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보치아 경기대회가 열리는 길을 내딛으며 경기장으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마음은 보치아 경기를 하고 싶은데 열 수가 없었으니 얼마나 보치아 경기를 그리워 했었을까요?

제4회 good job 보치아 대회가 2023년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강남스포츠문화센터 4층 대체육관에서 여러 분들의 축하 귀빈을 비롯해 서울 경기지역의 보치아팀 26개팀이 모여 32강전을 펼치었습니다. 26개팀이다 보니, 12개팀은 먼저 조 추첨을 할 때, 참석을 해서 32강전을 치르지 않고 부전승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팀들은 조 추첨을 할 때, 참석하지 않아 32강전을 해서 16강으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문화센터 4층은 보치아 경기장을 4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매우 컸습니다. 경기는 한번에 4경기장에서 2팀씩 8팀이 경기를 해서 토너먼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1등 상금이 500,000원이 걸려서 보치아 경기대회치고는 매우 상금이 많았습니다. 우리팀도 이번에는 상금이 탐이 나서 노리고 경기대회에 출전했는데, 안타깝게도 16강전에서 탈락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강호라기보다는 다크호스팀을 만나서 상대팀의 정보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경기를 여는 주최측에서 많은 경품과 참가 상품을 제공해 주어 경기는 비록 져서 아쉬웠지만, 경품과 상품 덕분에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해서 보치아 경기 대회들이 많이 개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생소한, 내지는 거리가 있는 운동일 수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도 보치아 경기대회를 열게 되는 때를 맞이했으면 하는 게 앞으로 저의 바람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장애인의 세상이라기보다는 비장애인의 세상이니까... 장애인들의 세상에 살아보고 싶다는 둥 말도 안되는 꿈을 말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세상이 되면, 우스워지니까... 우습기보다는 끔찍한 생각이고 끔찍한 말이니까... 쓸데없는 생각 같지만, 저 같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서럽게하거나 비참하게 했을 때, 저 같은 장애인들은 다 이랬을 겁니다. 세상과 사회에 바란다기보다는 제가 상상하는 세상과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왔다면, 세상과 사회에게 바라는 점이 많았을텐데 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당신 옆에서 삽니다

박양숙
뇌병변장애,
회사원

필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은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해 온 환경과 그 외 주위 영향에 의해 조금은 삐뚤어져 있고 긍정적이지는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필자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생활해야 하기에 노동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노력하고 있고 자기 나름의 보람을 찾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의 목적이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돼 있음을 듣고 위에 언급했듯 생활해 온 환경에 의해 조금은 비뚤어진 시각과 비판적(?)인 태도로 쓴 이 글을 읽음으로 아주 많은 변화는 아니더라도 뇌병변 장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선입견과 불편한(?) 배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길 바라본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사소통이라함은 기본적으로 경청과 말하기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경청을 하게 되는 상황에 매번 놓이게 된다. 한마디를 내뱉을 때 온몸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크디큰 신체활동이다.

그러기에 되도록이면 짧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압축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거기다 긴장이라도 하게 되면 더 심하게 말이 더 어눌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굳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뇌병변 특성은 보통 유아기부터 나타난다. 목을 가눌 수 있을 만한 시기에 목에 힘이 없어 계속 누워 있었다거나 특히 손 근육이 자유롭지 못해 아주 정밀함을 요하는 동작을 못하는 등의…

필자도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달리기, 고무줄놀이, 축구, 땅따먹기 등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했다. 어릴 때는 그런 놀이와 같이 동작을 크게 하는 활동들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체육시간을 즐겼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일 년이 가고 새 학년이 되면서 선생님도 바뀌지 않는가? 매년 첫 번째 체육시간엔 “넌 여기 앉아만 있어라” 선생님의 철통 같은 보호 아래 쭈굴모드로 앉아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면 친구들과 신나는 체육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밖으로 말하기가 어려워 내뱉지 못하고 늘 마음에만 담아두고 그 선생님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

마음에만 두는 게 아주 내성적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려면 전신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서로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어릴 때도…

일으켜 세워서 책읽기라도 시키면 속으로는 줄줄 잘 읽히던 문장들을 손에 땀을 한가득 쥐고 온몸이 경직돼 곧 터질 듯 한 얼굴로 더듬더듬 읽었던 것도 기억한다. 아주 말더듬이 나셨네~ ‘나 잘 할 수 있는데’ 마음엔 굴뚝같으나 몸이 안 따라줘서 늘 힘들었고 의지는 남달랐던 아동기를 지냈다.

무슨 동작을 하든 긴장하고 용을 써야 하니 연필을 잡을 수 있게 되기까지 나는 매일 전쟁을 치러내 듯 했다. 깨어 있을 때 해내려고 했던 내 의지와 힘씀이 잘 때도 이어졌는지 잘 때 이를 갈아서 턱이 매일 아팠고, 그때의 이갈이 효과(?)일까? 이가 좀 나란히 정렬돼 있다. ㅎㅎ

생각과 다르게 말을 통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내성적인 성격이 아님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트리플A형이나 극I유형이 인간으로 오해 받게 된 것 같아 조금 슬픈 부분도 없지 않다.

지금은 뇌성마비 장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자라온 시절 뇌성마비 경증은 중증장애와 달리 특별하게 관리(?)해 줄 게 없어서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지 않았다. 지금이야 포털사이트나 지식인 등에서 전문적인 의학적인 정보나 관리 방법 등의 여러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땐 아니었기에 크면서 그냥 불편함을 당연히 여긴 채(장애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 생활해 왔다.

업무량이 몰리고 집중되는 시기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며 딴엔 열심히 쳐냈지만 속도 문제도 있다 보니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야근이 지속됐다. 휴식시간은 나에게 사치다. 다다다다~ (키보드 불남효과) 그때 집나간 허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다지 좋지 않은 자세가 유지되니 그럴 수 밖에야. 허리와 목 통증이 지속됐고 정도가 심해져 재활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예약해 진료를 보게 됐다. 진료보신 의사선생님이 나보다 어린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뇌성마비 아동환자 진료를 많이 보신 듯 하다. 여태껏 장애로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필자는 그 첫 진료를 너무 신선한 경험으로 기억한다. (병원진료가 뭐가 좋겠냐마는)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를 안고 살고 있었고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다"가 내가 한말 다였는데 너무 상세히 뇌병변의 특성을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는 거였다. 필자가 불편해 하는 것과 말더듬이(?) 증상까지 다… 그런 진료경험과 장애상태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위로였기에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던 것 같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내용은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무슨 동작을 하면 2의 힘을 들여 하는데 우리는 7의 힘을 들여서 그 동작을 해낸다는 거란다. 선생님 말이 너무 다정스럽지 않은가. 환자분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란다.(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 표현이 뇌병변 장애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더 할 나위 없이 딱!인 표현이라고 생각들더라. 그 밖에 많은 상담내용으로 감동을 받았으나 진료받다 울어버린 자신에게 당황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ㅎㅎ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노화가 비장애인과는 좀 다르게 빨리 오고 더 크게 와닿는 건 너무 서글프지만 어쩌겠는가 받아들일 수밖에…

직장생활을 하며 정말 많은 종류의 인간들을 만날 수 있는데 말하려고 힘을 주는 시간을 잘 참고 기다려주는 이가 있는 반면, 교묘히 그 시간을 자기가 할 말로 가로채는 인간도 있다. 이런 인간이 직책자라면 물도 안 주고 삶은 고구마와 달걀을 한입에 넣어 잘 씹어 삼켜봐라 하는 상황과 같을 것이다.

나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직원이 업무적으로 실수한 적이 있었다. 좋다. 앞으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니 부하직원의 실수를 지적하고 타일러야 한다. 그게 직책자의 업무 중 하나일 것이다. 실수한 주제에 변명할 여지야 없지만 상황보고는 직원에게 들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아니었다. 말할, 시동 걸 시간을 기다려줄 생각이 전혀 있어 보이지 않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지레짐작으로 그 직원이 해야 할 변명들로 포장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동료가 일부

말을 하고 있으면 내용의 흐름을 재빨리 파악해 그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교묘하게 긁고 있었다. 내용 파악을 빨리 해주어 대~단히! 고맙기는 했을 것 같다.ㅎㅎ(아이고 머리가 좋은 인간) 그 후 대화내용이 말하려던 의도와는 다르게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그 대화는 동료에겐 큰 의미가 없어 보여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체념한 채 잔소리와 질책을 듣고만 있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한다.(저런 게 무슨 관리자?라며 속으로 욕을 많이 하긴했다고 한다. 감정이 동기화 된다 분하다 후후) 우리와 같은 특성의 장애를 가진 이들의 준비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기회조차 주지않고 말할 기회를 가로 채 자기가 판단해 버리고 처단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기에 필자가 이런 기회를 빌려 이야기 하고 싶었다.

그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들로 보여 그냥 한마디만 하겠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언제가 됐든 니들도 똑같이 당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했던 니 행동들이 생각나서 뼈저리게 후회해라 (매우 많이 순화함)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사회적 편견

필자가 늘 가는 편의점이 있다. 거기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듣기로는 두 인원의 직원 중 한 분이 발달장애를 가졌다고 한다. 갈 때마다 같이 가는 동료가 얘기하길 장애직원이 표정도 밝고 근무태도가 더 좋다고… 그런데 갈 때마다 두 직원 중 한 분은 카운터를 지키고 그 장애직원에게 물건진열만 시키는 상황을 많이 봤다고…

업무분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카운터를 보는 비장애 직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손님들은 계산대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저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을 왜 안하냐며 안타까워했고 우리도 끄덕이며 공감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제한해 버리는 것 같아 맘 한 켠으로 씁쓸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바로 저런 건가 싶었다.

장애라는 핸디캡이 이와같이 생각에 따라 기다림에 따른 시간적 낭비라 할 수도 있겠고 또 타인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때마다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안다. 비장애인만 사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옆에서 같이 살아간다. 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장애유형에 대한 특성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져준다면 알고 있는 유형의 장애를 가진 이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유연한 태도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애인 노후에 대한 사회적 장치에 대한 필요

때때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만 남은 시간들을 걱정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내 밥벌이를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일정의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고들 한다. 그래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감추고 혜택을 받고 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성치 않은 몸으로 소처럼 성실하게 일해도.. 정해진 만큼 밖에 못 버는 데도.. 나중에 재산이 있다고 혜택을 못 받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허리띠 졸라 매 정말 아끼고 아껴서 노후대비랍시고 저축해둔 것 때문이라고 치자..

일찌감치 비슷한 수준? 아니 필자보다 양호한 장애상태의 이는 어릴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구멍난 정책의 혜택을 보며 노동하지 않고도 잘먹고 잘살고 있다. 필자가 나이들고 병들 때 즈음에는 제발 좀 그런 구멍난 정책이 메워져서 정한 장애노후가 보장되길 바란다.

내 존재가 나의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짐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수요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는 나라가 되길 바래본다.

마무리

부정적 모드로 글을 써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아름답고 긍정적인 글이 많을 줄 미리 예상하고 좀 독특하게 썼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이지만 이런 글을 받는 취지처럼 필자와 같은 이들의 생각을 묻고 의견을 들어주는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장애에 대한 인정!!!!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 길을 가다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나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 고운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의 옆 어디에선가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 리스펙트~

반 걸음의 거리

이승진
시각장애,
공무원

올해가 2023년이니까.. 벌써 23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다. 그 당시 의사가 녹내장이라고 진단하였을 때, 난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결코 장애인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수술을 할 때마다 조금씩 시력은 떨어졌고 3번째 수술을 마치고 나서는 거의 시력이 나오지 않았다. 수술 그 자체는 힘들지 않았지만 시력을 잃어가는 매 순간순간이 견디기 힘들었고, 수술 후 눈에서 붕대를 제거할 때마다 들었던 그 암담한 현실이 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 장애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자기에게 처한 장애를 적응하기도 전에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 스스로에게 처한 장애를 받아들이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갔을 때 또 한 번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된다.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차별과 편견은 제쳐놓더라도, 우선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은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가는 걸 주저하게 만든다. 흰 지팡이만을 의지하여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려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거리에 있는 모든 게 시각 장애인에겐 장애물이고 때로는 시각장애인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되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살짝 패인 블록이나, 제멋대로 세워놓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마구잡이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비장애인에겐 별 걸림돌이 되지 않겠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겐 그 작게 튀어나온 블록이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아파트 앞에 무작위로 서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부딪혀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 불법 주차되어 있는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얼굴을 부딪쳐 다치기도 한다.

그래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난 야구모자를 자주 애용하게 됐다. 또 한 가지 추가된 습관은 선글라스를 쓰게 된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선글라스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도 내가 선글라스를 쓰게 된 건 앉을 때 머리부터 내려가는 습관 때문이었다. 여기저기 모서리나 책상 등에 이마나 눈 주변이 부딪히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집엔 다양한 모자들과 몇 개의 선글라스가 있고, 이게 시각장애를 갖게 된 후 내 외모의 작은 변화다.

시각장애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해프닝 몇 가지가 생각난다. 한 20년 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복지관에 가려고 발걸음 수를 세며 버스 정류장에 갔다. 주위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다행히 내 옆에서 말소리가 들려 도움을 청할 수가 있었다. 몇 번 버스가 오면 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몇 마디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내가 말을 해도 답변이 없어 이상했는데 그분은 당신이 기다리던 버스가 와서 먼저 타고 가버렸던 것이다. 나 혼자 허공에 말을 했던 것이다. 옆에 계신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한참이나 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태로 말을 했을 거였다.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해프닝이고 별거 아니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내겐 큰 상처였다. 그 마음에 상처가 한참 동안 날 집에서 나갈 수 없게 했다.

최근 겪는 일은, 퇴근 길에 바우처 택시를 이용했는데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날 길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다. 황당한 일이지만 가끔 일어나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와 경험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할 거다.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이 많이 변했고, 도움을 주려는 비장애인들도 많아졌다고... 그 말도 일부는 맞다. 하지만 온전히 맞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인식의 변화란 그리 쉽게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필리핀에 갈 기회가 있어 필리핀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다.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입국신고서를 써야 했다. 휴가철이라 필리핀 비행기였지만 주위에는 한국 여행자들이 많았다.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어머니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 주위 한국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난 필리핀

운항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필리핀 여성 승무원은 고맙게도 너무 친절하게 우릴 입국신고서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한국 여행자분들이 흰 지팡이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내 모습을 보고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고, 그분들도 입국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 그분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서일까? 개인주의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더 발전해 있는데도 그들은 장애인 돕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일까?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나라다. 그럼에도 그들은 약자들을 돕는다. 여행 중 그들이 성소수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성소수자들을 대함에 어떤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대하는 것 또한 성소수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 그들은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고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문화의 차이일까? 내가 생각하기엔 문화의 차이가 아닌 약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다. 그들은 자신과 다름을 인정한다. 또한 자신과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배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미래 언젠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인을 대할 때 어색함이 거의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다. 난 인식의 변화 속도는 많이 느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느리지만 꾸준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은 사회에서 소외시켜야 할 존재가 아닌, 함께 걸어가야 할 사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일원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걷기 위해 반 걸음 앞을 감지해 주는 흰 지팡이가 필요하고 지체장애인은 휠체어가 필요할 뿐이다.

장애인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의 차이는, 이 반걸음정도가 아닐까... 반걸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반걸음을 줄이기 위한 사회의 노력은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거리에 점자블록을,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와 음성 알림, 지체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등등.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 비용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복지예산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알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해,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집 밖을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는 때가 오기를 바란다. 이런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해나는 날이 되길

장해나
시각장애,
무용수(예술인)

아버지의 유전으로 나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백내장 녹내장 안구소안 안구진탕 시신경약시 여러 병명으로 인해 치료 방법을 알 수도, 그땐 찾을 수도 없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있었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4kg이 되자마자 바로 수술을 시작하였다. 네다섯번 여러 차례 수술을 했다. 엄마께선 몸조리를 할 겨를도 없이 아픈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이 아픈 걸 돌볼 겨를 없이 내 수술을 시작했다. 눈 수술의 특성상 아이가 울어서도 손으로 만져서도 안되기 때문에 품에 안고 쪽잠을 주무시며 온힘을 다해 간호를 했다. 아버지는 자기와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을 보고 절망과 분노로 힘들어하셨다.

그렇게 힘든 수술 후 의사선생님은 사람의 힘으론 고칠 수 없는 눈이니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셨다고 엄마께서 말씀해주셨다.

유아 시기에는 전맹이었고 7살 때 아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쪽 눈은 이미 실명을 하였고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 보기 흉할 만큼 흉이 심했고, 그로 인해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신기한 듯 쳐다보고 무섭다며 우는 친구들도 많았다. 조금 보였지만 한걸음 가면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나는 씩씩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오랜 시간 지속되니 힘들었다.

유치원을 처음 갔을 때 나를 보고 무섭다고 피하고 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놀리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마음만 아니라 몸도 아파지기 시작했다. 내 존재가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부정당하는것 같아서 슬펐던 기억이 난다.

가정의 형편과 문제로 일반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어, 책도 칠판도 보이지 않아 날 놀리고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땐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선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가정사로 인해 잦은 전학으로 놀림과 왕따는 더 심해졌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사람을 좋아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렇게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린시절부터 안압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매일 머리가 아프고 더 심한 날은 구토와 치통까지 동반해 먹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몸이 이상하게 더 많이 아파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했다. 내 병명은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했다. 자가면역질환을 앓게 되면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시력은 더 나빠지고 컨디션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녹내장이 심해져 오른쪽 눈을 적출하게 되었다.

시각장애만 있는 것이 아닌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여러 이유로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했고 매일 몸이 너무 아팠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 하지만 온힘을 다해 날 키우고 지켜주신 엄마에 대한 감사함으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지칠 때마다 마음을 다 잡았다.

그렇게 지금은 수원시 댄스스포츠 선수로 프리랜서로, 시각장애인 무용수로, 현재는 룩스빛 아트컴퍼니라는 시각장애인 무용단에 단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무용강사 지도자가 되기 위해 보조교사로도 활동하며 장애인인식개선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많이 없어 힘든 시기를 보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많이 생겼지만 10~20년 전엔 찾아보기 어려웠고 지금도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다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또는 하고싶은, 배우고 싶은, 종류가 있는지 모르거나 늦게 알게되어 아쉬움이 컸다. 조금이라도 보일 때 조금 더 건강할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활동하고 있음에 감사하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지금도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서 꿈으로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다. 정보화기기 등 많이 발전되었지만 나와 같이 주위에 알려줄 지인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는 경우라도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확실한 방법으로 홍보 또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활동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겉으로 표시가 많이 나지 않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뿐, 다리가 불편한 것은 아니니 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이 안 보이는 것이지, 사지는 멀쩡하니 비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안했던 경험이 있다.

흰지팡이를 들고 있어도 핸드폰을 하느라 보지 못해 밟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또 한번은 길을 잃었을 때 사람 소리가 나서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염없이 서 있는데, 멀리서 "도와드릴까요?"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를 위해 뛰어오시는 듯 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 건너편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어폰을 꽂고 다녀서 그런지 못 듣고 가는 것 같아서 지켜보시다 건너오셨다고 하셨다.

최근에 공연일정으로 프랑스에 다녀왔는데 거기선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신기했다. 우연인가? 생각했는데, 함께 간 비장애인 무용수 선생님께 신기하다 얘기를 드렸더니 주변을 둘러보시고는 핸드폰을 하며 보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런 듯 하다고 하셨다.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고 남을 둘러볼 여유도, 시간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동할 때만이라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긴 힘들까?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에 갔을 때 파리맹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은 1784년에 세계 최초로 생긴 맹학교라고 했다. 파리맹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 기억에 남은 말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가능한 학생들은 일반학교로 간다고 한다. 비장애인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 친구들을 사귀어보고 경험해 봐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성인이 되서야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다가가야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줘야하는지 어울릴 수 있는지 모르고 어려워한다. 우리의 사회에 일상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어 알게 된다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 함께하는 평범함이 되길 바라본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틀린 것이 아닌 조금 다른 것뿐 장애인도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의 친구 동료 벗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따뜻한 배려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조은경
시각장애,
텐덤사이클 선수
및 요가 강사

현재 서울장애인텐덤사이클 대표선수 및 SK에코플랜트 기업선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체형교정 요가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은경입니다. 전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다 어느 날부터 시야가 안개 낀 듯 흐릿하게 보여 2018년도에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중증시각장애인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진행성 유전병으로, 망막 세포소실 및 망막조직위축이 특징인 질환으로서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가 없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적응하여 사회에 필요한 한사람으로서 나의 긍지를 찾기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발걸음했습니다. 적응을 위한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 중 우연히 요가 강좌를 듣게 되었는데, 비장애인 강사님의 지도와 설명 방식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가 요가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세세한 설명과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요가를 진행해야겠다 마음먹고, 하루에 5~7시간씩 목표를 설정하고 수련하여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사이클은 2019년에 서울 시각장애인선수를 모집한다고 하여 추천인을 통해 테스트에 통과, 선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후 2019년 개인도로 금메달, 2021년 트랙경기 200m와 1km, 도로 독주 30km 은메달 3개, 2022년 트랙경기 200m 금메달, 트랙경기 3km 동메달, 도로 독주 동메달 획득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루며 현재도 사이클 선수로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간간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요가강사와 사이클선수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중도 실명으로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흰지팡이 독립보행 등 자립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도처에 부적절한 장애물의 설치, 고르지 못한 길과 점자블록, 음성신호 시설 및 키오스크, 배달앱 같은 음성안내 시스템 부족, 시설 내 점자 미설치 및 오설치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은 불편함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는 부주의한 전동휠체어 운전자입니다. 저는 2022년 5월에 안내견을 삼성화재에서 분양받아 안전하게 보행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면 갑자기 전동휠체어 운전자분이 비키라고 하며 본인 위주의 탑승과 부주의한 전후진 운전으로 위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는 시각장애인 지인이 복지관 오는 길에 전동휠체어가 발을 밟고 지나가 발가락 골절로 아파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휠체어는 그냥 지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안내견과 함께 산책을 가던 중, 언덕 위에서 전동휠체어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안내견을 보호하려고 옆으로 바짝 붙어 섰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을 이어주는 하네스를 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안내견이 다쳤을까 놀라고 화도 났습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하는 장애인들로 인해 비장애인들이 가끔 '장애가 유세냐'라고 하여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장애인분들까지 폄하되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장애인들의 성숙된 말과 행동으로 모든 장애인분들이 좋은 평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내견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안내견이 되려면 생후 8주가 된 강아지들은 이후 약 1년간 퍼피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 가정에 위탁되어 사회화 공부를 하고 안내견 학교로 돌아와서 전문 훈련사로부터 6~8개월 동안 본격적인 안내견 훈련을 받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수목적견이 되어 다른 반려견들처럼 짖거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안내견과 마주치는 비장애인분들은, 안내견을 다른 반려견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함께 보행 중일 때에는 보행 집중력을 위해 안내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야 하며, 사진은 반드시 시각장애인에게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안내견을 만지거나

부르는 등 관심을 끄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안내견의 집중력 저하는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내견은 법적으로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의 장소에 시각장애인과 함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게 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안내견 거부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이러한 인식이 나아졌을거라 기대했지만, 아직도 숙박시설과 음식점에서는 저와 안내견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이클 훈련과 경기 등의 일정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견을 보는 순간 인상을 붉히며 무조건 '개는 안된다'고 나가라고 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가족과의 여행 전에 안내견 동행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구하러 전화를 하고,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구별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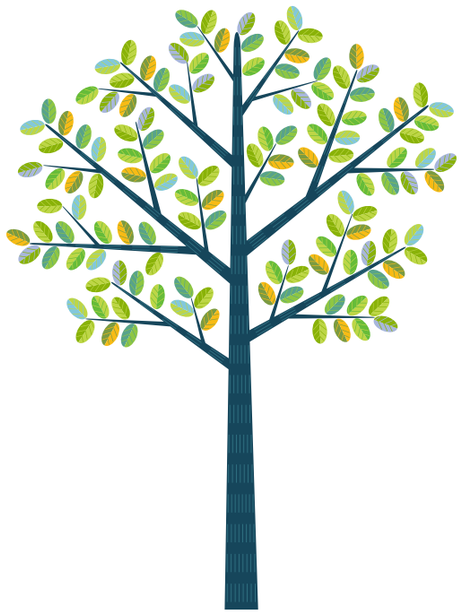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들어갈 때도 '손님들이 싫어해서 안된다', '나도 개를 키우지만 개는 안된다', '무조건 안돼요. 안돼요'하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인데, '눈을 밖에 두고 와서 식사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며, 이럴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곤 합니다.

나도 시각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단지 나에게도 살다보니 장애가 빨리 찾아왔을 뿐인데, 비장애인들도 살다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원치 않게 장애가 올 수도 있는데 인식을 못하고 '지금에 나는 괜찮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식개선 강사는 아니지만 장애인으로써 나와 안내견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기 위해 나라도 안내견 홍보 팜플렛을 드리고 2022년도 10월에는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도 안내견 인식개선을 제대로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안내견 전문지도자 선생님과 안내견 인식개선을 위하여 전화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업주 사장님과 종업원의 안내견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활동하다보면 적절하게 개선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법과 관련 과태료 부분을 얘기하여도 업주 사장님과 종업원들은 법은 법이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업이나 숙박업 허가 절차에 있어 필수적 교육 의무화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정부와 시·도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의무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되지 않고, 모두의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하나라도 좀 더 다양한 생각과 배려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어느 누구도 불편한 삶을 지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중도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비장애인으로 지내면서 늘 쳇바퀴 돌아가듯 즐겁지 않은 삶을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마음대로 걸어나 갈 수 있었으며 여행도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삶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무조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고자 하는 목표와 절실한 마음만 있다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지금은 안내견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조금은 모자라도 괜찮아

노영현
청각장애, 프리랜서

까무룩한 어느 2000년 겨울, 나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청각을 잃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던 나의 부모는 뒤늦게야 이상함을 깨닫고 병원으로 데려가 충격적인 결과를 들어야 했다. 내게서 소리를 알려주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 보았지만 보청기만으로는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인공와우라는 장치를 머릿속에 심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수술이 있다는 것을 듣고 수소문을 통해 돈을 겨우 모아 내가 4살이 되던 해에 소리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평범한 또래 아이들에 비해 한발 늦게 한글을 깨우친 나는 유치원과 함께 언어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세상의 언어를 익혀나갔다. 부모의 힘겨운 노력 덕에 암흑이었던 내 세상에 색채를 불어넣을 수 있었고 입과 귀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내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특수 유치원에서 일반 유치원으로 옮긴 나는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생이 될 때까지 사회가 만든 질서와 시스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만 내 곁을 지켜 준 고마운 친구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끝내 적응하지 못한 나의 미성숙에 질려 결국 고민 끝에 15살에 특수학교로 전학했다. 다행히 옮긴 학교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함께 한 친구들이 있어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까지 무사히 마쳤던 나는 크나큰 결심으로 나 혼자 일본으로 떠났다. 특수학교에서 지낸 4년 동안 장애라는 편견을 깨부수고 당당히 나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 배움으로 꽁꽁 감추던 나의 결핍을 당당히 드러내고 인정받아 자유롭게 펼쳐 나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연약했던 내 날개는 이내 부러지고 좌절하고 말았다. 내 결핍을 아는 유일한 친구가 괜한 소문이 날까 봐 걱정된 마음에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말에 애써 쌓아놓은 나의 자신감이 확 꺾여버렸다. 인정받지 못한 나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꽁꽁 감추며 참아왔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보니 점점 나다운 게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고 내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에 서서히 무너져 갔다. 울면서 마지막으로 보낸 내 SOS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한동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완벽을 향해 달려가던 나의 청춘은 결국 미완성으로 떨어져 버렸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겨내지 못했다.

아무리 인공의 도움을 통해 소리 있는 세상에 접하게 되었다해도 완벽함이란 없었다. 기계로 듣는 소리는 자연스럽지 못했고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조차 내 노력으로 커버하려고 했던 것은 실수였다. 나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애써 회피하며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 결국 나는 내 목소리마저 잃었고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내가 입을 열면 모두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내게 시선이 닿는 순간마저 괴로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입을 열면 "어디서 오셨어요?", "너 외국인이니?"하고 묻는다.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냥 사람들이 소통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이야기하며 섞여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은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지금도 언어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억양과 발음에 신경을 쓰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비장애인처럼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이 물음은 피해갈 수 없었다. 입만 열어도 내게 국적을 묻는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마음 편히 입을 열 수 없었고 나다움에 떳떳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이 죽은 듯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다. 그래서 나도 말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몇 년을 살아보고 난 뒤에야 깨달았다. 나다움이란 것은 잘 듣지 못하는 나도 또한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나로써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잘 듣지는 못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없었다. 그저 세상이 악의 없이 날리는 상처에 찔려 아파하기만 했다. 그 말에는 무뎌지기가 어려웠다. 아는 사이에서도 대화하다가 삑사리가 나면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까봐

두려워서 마음 편히 말을 못 할 때가 많다. 카페나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옆 테이블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까봐 신경이 쓰인다.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한다. 조용한 공간에는 더더욱 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지도 모르겠다.

인공와우를 착용하면서 곤란했던 적이 있다. 일본에서 지냈을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참여했었는데 입학설명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학생들에게 통역기를 제공해주었다. 그런데 그 통역기가 귀에 끼는 형식이다 보니 나는 들을 수 없는 형태였다. 어쩔 수 없이 일본어나 영어로 설명을 들어야 했고 다른 학생들은 내가 일본어를 잘해서 착용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 일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이 와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이제 막 연수를 온 유학생 신분이다 보니 소통이 원활하게 안 돼서 대신 전화기로 한국어 통역사와 대화해야 했다. 그런데 전화기가 옛날식 전화기다 보니 스피커가 너무 작아 잘 안 들렸다. 인공와우는 보통 귀와 다르게 음향처리기가 귓등에 위치해 있어 전화를 받을 때는 스피커를 위쪽에 대고 해야 한다. 아무리 대봐도 소리가 너무 작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거의 30분 넘게 전화기와 싸우다가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해결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친구들은 내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조별과제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한 친구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도 있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머리를 쓰다듬을 때가 있다. 여러 명이 내 머리를 쓰다듬다가 흠칫 놀랄 때가 많았다. 그 이후로 나는 모자를 꼭 쓰고 다녔다. 어느 친구는 내게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쓰는 거냐고 농담하기도 했다. 수업할 때는 더 잘 듣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아야 했다. 뒤에 앉는 사람이 내 머리에 있는 자석을 발견할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머리를 가렸다. 한번은 뒷자리에 앉은 친구가 내 머리에 있는 자석을 보고 뭐냐고 큰 소리로 묻기도 했다. 그리고 읽거나 발표해야 되는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어느 도시에서 왔냐며 사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물으시기도 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쓸 때도 억양을 신경 써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나는 전화공포증이 생겨 쉽게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고객센터나 서비스센터를 통한 연락수단은 거의 전화밖에 없었다. 핸드폰 유심을 개통할 때도 꼭 전화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안 받다가 겨우 받았던 적이 있다. 병원이나 사람이 많은 공간에는 가기 무서워졌고 사람과 대응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한동안 외출을 거의 안 하고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몇 개월 후에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외출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계속 다니다보니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편하게 다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해야되는 공간에 가거나 친구들과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날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유원지나 식물원 같은 곳에서 티켓을 예매할 때 얼굴이 안 보이는 창구로 대화해야 해서 불편할 때가 있다. 유리를 투명하게 만들거나 대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고객센터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텍스트로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편화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자막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준다면 좋을 것 같다.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도 자막이 달려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청각장애를 비롯한 수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하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자신감을 얻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한 발돋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카페나 식당에도 장애인 우대 할인을 시행하면 장애인들이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네일아트 숍을 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학교에서는 음악 수행평가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 부르는 가창 시험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시험이기에 악기의 이름을 외우거나 음악의 역사에 대한 시험을 봐서 다른 방식으로 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동시에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만들어 나간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조용한 세상 속에서 꽃피운 용기

청각장애의 삶의 여정

이향지
청각장애,
향지원 진돗개

두 살의 어린 나이에 원인이 모를 열병을 앓은 뒤에 세상의 소리가 멀어져갔습니다. 그때부터 보청기(기계음)를 끼고 언어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자연스레 알아듣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청각장애인은 언어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어느정도 들리더라도 입모양을 읽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때로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지 훈련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까지 꾸준히 배웠습니다.

학창시절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시간에 전문 속기 타이핑이 없었습니다. 매일 수업시간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채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들을 수가 없어서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 안 다닐 수도 없어서 억지로 일반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저에게 지루하고 무의미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어 영어, 수학 과외도 받아보았지만 실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답니다.

의사소통 할 땐 간혹 말로는 전하지 못하는 마음을 편지나 쪽지로 나누고 했습니다. 그럭저럭 친구들에게 글로 표현도 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었답니다. 말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으나 속 깊은 대화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내 목소리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들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배려로 제가 발표할 때에는 도와주고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차례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용을 읽는데 다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을텐데도 그냥 묵묵히 들어준 학생이 고마웠습니다.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친구가 제 편지를 보고 문장력이 부족하다는 귀뜸을 해주었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자극받아 더욱 노력하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공부부터 열심히 하였습니다. 대외활동에도 참여하며 글쓰기에 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기초적인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여전히 글을 잘 쓰고 싶어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써 나가거나 유튜브 자막을 만들고 업로드 하기도 합니다.

지금껏 청각장애의 목소리가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알아듣지도 못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어떻게 들리는지도 가끔 묻기도 하여 개선해나갔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목소리에 따라 다르지만 제 목소리가 꽤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계속 지적해 주지 않는 이상 목소리가 크게 말하고 다닌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비장애인이다보니 저를 위한 이해와 배려로 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창시절, 비장애인의 시선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비장애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및 유튜브에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나니까 어느 분이 제 용기에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은 청각장애를 숨기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여쭤보니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편견을 깨뜨리고 싶어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당당히 밝히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SNS에서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도 친구들에게 내 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셨답니다. 부모님께서는 장애란 좀 불편할 뿐이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교훈 덕분에 저는 장애가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부모님에게나 세상을 원망하고 살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조용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변화의 메아리
'장애인과 공감하는 변화와 포용'

이제 장애인이 스스로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당하게 자신감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각장애인의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신체에 오감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이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란 다섯 가지의 감각을 말합니다. 청각장애인이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귀에 문제가 있어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을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의 발생시기별로 선천성 청각장애와 후천성 청각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각에 문제가 있으면 말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들은 귀가 잘 들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간단한 말부터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여 듣고 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각장애, 즉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머거리 혹은 농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은 타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전문 언어치료 기관에서 배우면서 꾸준히 말하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목소리는 발성 연습 없이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말은 입모양을 보고 알아차리고 말을 하는 것을 '구화'라고 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눈으로 상대방의 입모습을 보고 듣기를 대신하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전화로 통화가 어려웠는데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영상 통화를 통해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입모양을 볼 수가 없어서 정말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하실 때에는 천천히 이야기 해 주시고 알아듣기가 여의치 않으시면 글씨로 메모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메모 작성과 영상 통화 등의 작은 배려가 청각장애인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청각장애인 공무원으로서 교육 및 공부개선의 필요성

임지선
청각장애,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

1. 사고, 질병,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와 일상에서 장애로 인해 겪는 사례

저는 청각장애를 알게 된 나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입니다. 1990년에 장애를 판정 받았는데 그 때의 제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말라리아라는 유행병이 돌았는데, 우리 친언니가 밖에 놀다가 그 병에 걸렸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인 저 역시 몸이랑 면역력이 약하다보니 언니한테 옮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열이 매우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족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데요. 며칠 지나니 점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위인전 헬렌켈러처럼요. 그 후로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어느 날 친척이 시장에 함께 데리고 갔는데요. 친척이 시장에 물건을 보려고 집중하다보니 돌아다니는 저를 놓치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저 없어지니 매우 놀라서 저를 애타게 찾고 힘들게 저를 발견하고 멀리서도 제 이름을 불러도 들리지 않아서 바로 이상한 점을 느끼고 대학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검사를 받고 그 때 청각장애라는 진단을 판정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청각장애를 느끼게 된 건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입니다.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청각장애에 대한 인지를 잘 못했는데 유치원 입학하고 제 주위 또래친구들이랑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각장애를 서서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살면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겪으니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과 함께 동반해서 고통스러움을

느껴서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사례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 시절에는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와서 모든 주변 환경을 적응해야 할 시기였고 지리와 위치가 익숙치 않는 상태에서, 제가 유치원부터 용돈으로 모은 저금통이 있었는데 아파트 건너편에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넣는 첫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 큰 도로를 건너려면 엄청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횡단보호와 신호등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매우 키도 작고 너무 어릴 적이여서 쌩쌩 달리는 차와 도로, 신호등 모든 것이 무섭게 보였습니다. 신호등 건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친언니에게 같이 가자고 졸라댔는데, 언니가 나가기 귀찮아 해서 저리 가라고 단호박으로 거절하니 시무룩한 상태로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몸과 마음이 이끌리는대로 은행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그 나이에는 규칙과 살면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아직 배운 시기가 아니다 보니 녹색불 신호등이 아니었는데도 무단횡단하는 비장애인을 따라 제가 무심코 그 도로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갑자기 다가오는 트럭..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 하얀 세상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병원이구나 느껴지고 저는 다리 다쳐서 입원하고 다리는 많이 다친 상태더라고요. 그 때 병원에서 가족이 울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귀가 들리지 않아서 '멍~~~ 무슨말이지..?' 그때부터 청각장애구나 확실히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 대 일은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명이 있으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매우 남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시선 및 편견은 저는 제일 가까우면서도 먼 가족에게 편견과 시선을 많이 느꼈습니다. 청각장애여서 억압과 제한을 많이 겪기도 했고요. 그 3가지 편견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공부와 경쟁의 부추김

우리 가족은 모두 공부를 잘한 집안이었고 아빠, 언니, 남동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로 어릴 때 언어치료를 너무 힘들게 받고 언어습득에 한계점을 느껴서 자신감 하락과 의욕 상실에 어릴 적부터 이미 겪은 상태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언니와 동생에게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그 때 청각장애로 인해 들리지 않는 어려움을 매우 느껴서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걸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래도 가족에게만큼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가족처럼 따라갈 수 있을꺼라고.. 가족에게 기대와 부응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똑같이 착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무리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해도 절대 비장애인처럼, 가족처럼 따라 갈 수 없는 한계점을 느끼고 손을 놓고 포기했었습니다.

저는 목표가 보이지 않고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공부 할 의욕이 없는 것뿐인데, 가족들은 제가 손을 놓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너는 남들보다 몇배 공부해야 해' 강제 아닌 강제공부를 강요했습니다. 그럴수록 정체성을 잃어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니 사춘기도 심하게 오고 점점 방황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떨어지고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첫 편견입니다.

2) 해외여행

두 번째 편견은, 대학교 졸업 후 첫 번째 사회생활로 복지기관에 취직했는데, 근무하면서 비전이 보이지 않아, 그만두고 나니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공무원 해보라고 말을 많이 해주어서 자신 없고 마음이 준비 안된 상태로 공무원 도전해볼까? 공무원에 취직하고자 모아둔 돈을 가지고 공무원 고시에 뛰어든 지 얼마 안된 시기였는데요. 그 때 부모님은 공부 때문에 미국에 몇 년 있었고, 언니와 동생은 미국에 간다고 들떴고 저도 덩달아 가고싶다고 말을 했고, 비행기표만 끊으면 되는건데 얼마 후에 언니와 엄마가 미국 가지말라는 소리를 듣고나니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험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무원 공부 집중하라는 이유로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공부 시작한지 1달도 안되어서 바로 합격할 것도 아니므로 미국 다녀와서 매진하겠다고 했는데도 가족은 극구 말리니 점점 화가 나는겁니다. 언니랑 심하게 다퉜는데 그 주고받은 이야기가 시간이 많이 흘렸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너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잘 들리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혼자 비행기 타기 위험해!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때 제 주위는 혼자서도 미국 유학 가고, 해외 여행 혼자서도 잘 다니는 청각장애를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혼자서도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소통은 필담으로 아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전달하면 되고 그래도 안되면 제스처로 하면 된다고 설득을 했고, 나 혼자서 비행기 따로 갈테니 표만 구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핑계를 대고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 때 제 말을 공감해주고 안된다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말을 해주었더라면 제가 아마 지금까지 원한과 분노, 증오가 남지 않았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이라는 단어만 보면 저절로 가족의 반대가 생생히 떠오릅니다. 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한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제가 겪은 편견이었습니다.

그 후로 오기를 부려서 공무원 합격하고 서서히 혼자서도 일본, 아시아, 유럽, 캐나다 여행을 다니니 가족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 방법이 있고 극한 상황에 일이 닥치면

알아서 방법을 찾으며 할 수 있게 되는데 왜 반대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족이 어릴 때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못 받아서 그랬겠지만요. 교육에 받지 못한 무지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제 의견과 속상한 마음을 진심으로 잘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세심히 담아뒀으면 아마 제 마음에 생채기가 남지 않았을꺼라 생각됩니다.

3) 결혼과 육아

세 번째 편견으로 결혼과 육아에 대한 대립과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결혼을 하되, 절대 아이를 낳지 마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다보면 아이가 너를 부르는데 못 들리면 어떻게 하는지, 또 물건을 만지는데 못 들으면 못 달려가고, 불이 나도 소리를 못 듣고 아이가 다칠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또한 아이와 소통에 있어서 아이가 못 알아들어하고 소통을 잘 못해서 아이의 마음에 멀어지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제 주위에 결혼하고 출산하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의 청각장애 부부가 매우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건 육체적, 정신적으로 비장애인보다 힘들지는 몰라도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는데 가족은 이미 머릿 속에 한번 박힌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아서 더 이상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편견입니다. 여전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하고싶고, 결혼하고 내 아이를 직접 키워보고 싶고, 직접 겪어보고 제가 판단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 큰 어른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청각장애 성인이니까요. ^^

2. 세상 및 사회에 바라는 점

청각장애인은 귀가 들리지 않지만 눈을 활용하여 상황과 내용을 이해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 남들보다 시각적으로 예민합니다. 반복 또 반복해서 보는 습관이 길들여졌고, 또한 미세한 텍스트를 잘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눈으로 잘 보이는 농인이라고 부릅니다. 공부하고 싶은 청각장애인이 무지 많을 것인데 비장애인보다 공부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 학업 진전이 엄청 더디게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의 조기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세상을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명언처럼 내가 원하는 지식과 상식을 쌓고 공부라는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나아가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데요.

제가 세상 및 사회에게 바라는 점은 인터넷에 유명한 강의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눈 앞에 강의가

있어도 들리지 않아서 꿀벙어리처럼 무슨말인지 몰라서 놓치는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강의가 있어도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 아무리 봐도 무용지물이고요. 따라서 공부나 학업 진전이 비장애인들보다 매우 더딥니다. 유튜브나 TV의 뉴스나 드라마에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인터넷 강의도 자막이 모두 삽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EBS 고교 수능방송처럼요. EBS 수능 인터넷강의는 자막 삽입이 잘 되어있어서 그걸로 공부하기 편했고 그 덕분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는데요. 다만, 양이 방대하고 과목수부터 압도적인 사회복지사1급과 컴퓨터활용능력1급이나 사무자동화기능 같은 컴퓨터자격증 실기는 아직도 합격 못했습니다. 몇 년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독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은 책으로 보는 텍스트보다는 학교수업, 학원수업에 강사가 말하면 머릿 속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인터넷 강의를 보고 강사진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고 파악하기 쉽고 머릿 속에 이해가 되고 책을 보면 스펀지처럼 흡수가 빨라서 소화하기 쉬운 체질이여서 인터넷 강의 자막 삽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비장애인들은 귀로 잘 듣다보니 쉽게 강의를 돈 주고 듣고 따는데 청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간단하고 쉬운 현실마저도 듣지 못하는 형편이 녹록치 않다보니, 현실의 벽을 매우 느낍니다. 청각장애인들도 이러한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남들보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뒷받침되는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속도가 더디고 뒤져지는 취약한 조건을 가지게 되어서 매우 속상하고 그런 일을 겪지 않게 장애인식개선에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해 오아시스 샘물을 찾고 싶은 것처럼, 공부와 지식을 갈망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해결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서비스와 전국 대학교의 장애지원센터에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있고,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수많은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모든 강의마다 자막이 자동삽입 되어서 보기에 매우 편하고 덕분에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교육환경의 정책과 제도가 충분히 마련 되는 것처럼, 사회에 바라는 점은 전국적으로 모든 인터넷 강의 자막 의무적인 삽입도 매우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똑똑하고 뛰어난 청각장애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공부환경이 잘 마련되지 않아 능력이 녹슬게 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겪어왔고 지금까지도 그랬기에 누구보다 공부 교육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환경을 타파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3번의 도전을 거쳐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

김미래
지적장애,
호산나대학 인턴과정

나의 청소년기는 파란만장했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나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공부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웠고,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업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성적은 엉망이었다. 처참한 성적표를 부모님께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사인을 조작해서 내기도 했다.

친구관계는 더 엉망이었다. 친구들은 나를 무시했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하며 숙덕거리는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해망상에 가까웠다.

나는 친구들이 많은 공간이 싫어서 급식도 먹지 않고 점심시간이면 도서관에 숨어 있었다. 꾀병을 부리고 학교를 가지 않은 날도 많았다. 100만원을 엄마 몰래 인출해서 게임방에 가기도 했고 가출을 하기도 했다. 간절하게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센터를 검색해 보기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너무 힘든 어느 날에는 학교 경찰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집까지 찾아와 부모님과 심각하게 의논을 하기도 했다. 우리집은 나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즈음 부모님은 내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다.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 장애진단을 받자고 했지만 나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다.

나의 마음은 반반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 중학교는 특수학급이 없었다. 나는 나의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다만 학교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본으로 발령을 받았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니 해외에 가면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 나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두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곳에서는 공부보다는 활동적인 수업을 많이 했다. 영어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인 친구들이 몇 있어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매우 행복한 날들이었다.

그러나 일본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1년 반 정도 국제학교를 다니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너무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는 혼자서 일본 학교에 계속 다니겠다고 할 만큼 한국으로 오기가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올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셔야 했고, 말썽 많은 나까지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와 동생은 수원에 살고, 나는 할머니에 맡겨져 부산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부산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 학교를 다닌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기말고사가 있었다. 당연히 시험결과는 좋지 않았다. 나는 성적표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성적표를 발견하셨고, 나는 교무실에 불려갔다.

학교생활은 여전히 끔찍했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나는 어느 날 학교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부정맥이라고 했다.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 나 때문에 회의를 했다.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도움반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원반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마도 장애인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역할이었던 것 같다.

도움반 친구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였다. 나와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없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일반학급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다.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었고, 급식도 도움반 교실에서 먹기 시작했다.

도움반에서 생활을 하며, 나는 드디어 장애진단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교수님의 소개로 호산나대학을 알게 되었다. 호산나대학은 나를 위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나와 같은 경증의 발달장애 친구들이 잔뜩 있었다. 나는 대학생활 동안 성적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하고, 수없이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학교가 가기 싫었던 나였는데, 기숙사에 입소하는 월요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등교 준비를 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꿈처럼 행복한 날들이었다.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다. 컴퓨터 자격증은 어렵지 않게 합격을 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따기 위해 엄청 고생을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국가에서 발급을 해주는 자격증이고,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배려해주는 것 없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시험을 보는 자격증이다. 우리 학교에서 나를 포함해 총 5명의 친구들이 함께 두 달 간 공부를 하고, 시험에 도전을 하였다. 이전에 망쳤던 시험들이 떠올라 긴장이 많이 되었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이제 달라졌고, 선배들도 합격했으니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다.

처음 시험을 치고 집에 가는데 마음속으로 합격일지 불합격일지 불안함이 밀려왔다. 집에 가자마자 가채점을 해봤는데 합격이라는 결과가 떴다. 그래서 기대감이 넘쳐났다.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시험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왔다. 대망의 시험 결과 발표 날, 다른 친구들에게 속속 합격문자가 도착했다. 친구들이 합격했다며 기뻐하고 방방 뛰었는데, 나한테는 문자가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열심히 들여다봤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10분 후 불합격 문자를 받았다. 딱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이었다. 솔직히 다른 친구들 다 붙고 나만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실망스러웠다. 엄마도 왜 친구들은 다 붙었는데 너만 떨어졌냐며 잔소리를 했다. 너무 속상했지만 나는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학교에서 노인케어학과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으며 다시 시험 준비를 했다. 방과 후에도 저녁 늦게까지 교무실에서 문제를 풀어가며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열심히 했다.

12월에 친구들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왔다. 강당 앞에 나가 자랑스럽게 자격증을 받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보기가 싫었다. 친구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자격증을 자랑했다.

두 번째 시험 기회가 왔다. 첫 도전에는 필기시험이었지만 규정이 바뀌어 두 번째 도전부터는 컴퓨터로 시험을 치게 되었다.

필기시험은 한 달 뒤에 자격증 시험 결과가 나오지만, 컴퓨터 시험은 이틀 뒤에 바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또다시 불합격이었다.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아무래도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 처음이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교수님들이 "괜찮아, 너는 노력하는 게 장점이니까 다시 하면 할 수 있어."라고 해주셔서 다시 마음을 먹고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되었다.

필기시험은 시험 간 간격이 길지만 컴퓨터 시험은 더 자주 열려서 세 번째 도전은 한 달 뒤에 바로 다시 시험을 보게 되었다. 벌써 두 번이나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마음이었다.

세 번째 결과가 나오는 날은 학교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다. 오전 10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나는 그때 예배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10시 10분쯤, 예배가 끝나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뭔가 장문의 카톡이 와 있었다. 국가원의 카톡이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확인을 해보니 합격이었다!!!! 나는 너무 기뻐 날아갈 것 같았다. 나는 무거운 중강당 문을 단숨에 열어젖히고 교무실로 뛰어가서 외쳤다.

"교수님 저 합격이에요!!! 감사합니다!!!"

학교 친구들도 교수님들도 나를 많이 응원을 해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특히 세 번의 시험 동안 계속 나를 가르쳐주신 노인케어학과 최성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격증은 두 달 뒤에 받았다. 애타고 간절하게 기다리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학교에서 아침예배 후 자격증을 받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나는 무려 3번의 도전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합격을 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 중 하나인 것 같다. 힘든 도전이었지만 이루고 나니 앞으로 다른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고 싶다. 장애가 있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호산나대학 오사카 자유여행기

신해준
지적·뇌병변장애,
호산나대학 사무자동학과 3학년

"이번 3학년 졸업여행은 자유여행으로 갈 거야."

3월 중순, 처음 교수님의 공지를 들었을 때 여행 갈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다. 21년도에 호산나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법같이 바이러스가 완화되고 졸업여행을 가게 되어서 몹시 기뻤다.

졸업여행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였다.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부산 중에 가장 많은 친구들이 선택한 오사카로 여행지가 결정되었다. 나는 솔직히 이런 시국에 일본을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8년 전에 일본 후쿠오카에 가본 적이 있어 대만 타이베이를 선택했지만, 다수의 의견이니 따르기로 했다. 친구들과 함께 하려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친구들과, 그것도 패키지도 아닌 자유여행을 가게 된다는 생각에 들떴다.

나는 어린 시절 보육원과 그룹홈을 돌아다니며 자랐다. 부모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룹홈의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시설을 옮겨 다녀야 했다. 그룹홈 생활은 크게 힘들진 않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았다. 시설이나 보호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달라지는 규칙에 적응해야 했고, 무엇보다 자유가 없었다. 돈 관리, 친구와의 약속 등 나는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었다.

그러다가 재작년 8월, 다행히 그룹홈 친구들과 마음이 맞아 함께 집을 구해 자립을 하게 되었다. 월세, 생활비 관리 등을 내가 맡고 있는데, 책임감이 크지만 나는 잘 해내고 있다.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자유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좋았고, 그만큼 교수님들이 나의 능력을 믿어주는 것 같아서 기뻤다.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진심으로 기뻤다.

나는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반학교로 전학을 갔다. 나는 경증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데, 특수학교 친구들은 모두 중증이어서 나와 너무 맞지 않았다.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진도가 빨라서 가르칠 게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반학교에 가니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다. 일반학교 친구들은 내가 장애인이라며 놀리고 무시했고, 때로는 집 근처까지 쫓아와 괴롭혔다. 특수학교도, 일반학교도 나에겐 제각각 다른 이유로 힘든 곳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도서관 사서보조로 취업을 했는데, 일은 괜찮았으나 외로웠다. 성당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 그룹홈에 사는 아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시선을 보내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외로운 날들이었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는 생각에 직장을 포기하고 뒤늦게 호산나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좋은 친구들을 여럿 사귀게 되었고, 정말 행복한 3년을 보냈다.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게 매우 아쉬운 참이었는데,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다니. 꿈만 같았다.

우리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일주일에 2시간씩 졸업여행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 준비 기간 내내 매 순간 여행 갈 생각에 부풀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기억이 생생하다. 여권 준비과정부터 오사카에 대해 알아보고 가보고 싶은 관광지를 스스로 정해보던 시간, 예산을 짜고 자유여행을 위해 길 찾는 연습을 했던 때, 입국서류 작성까지. 지금 생각해봐도 매우 분주하게 두 달을 보냈다.

특히 내가 스스로 여행에 사용할 카드를 발급받고, 환전을 하고, 로밍을 하고, 영문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복잡한 과정을 해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처음이라 조금 어려웠고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번에 배웠으니 다음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5월 22일~26일, 4박 5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당일, 인천공항에 집결하여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나는 그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부풀었다.

오사카 간사이공항에 도착해 입국절차를 밟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리무진을 이용해 숙소로 이동했다. 우리 숙소는 4층짜리 아파트형 숙소였는데, 생각보다 매우 쾌적하고 편리했다.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도 있고 교통편도 편리해 여행기간동안 우리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었다.

첫 날은 저녁을 먹고 덴포잔 대관람차를 탑승했다. 하필 그때 비가 조금씩 내려 비 내리는 하늘에 대관람차를 탔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이후 처음 타보는 대관람차라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다. 둘째 날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갔다. 나를 비롯한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유니버셜 상징물인 지구모형에 UNIVERSAL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영화 Intro를 상상해 보기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닌텐도 월드에 가서 카트도 타고, 여행 기간 중 가장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셋째 날은 당일 투어를 예약해 교토 투어를 했다. 가이드 선생님을 따라 대나무 숲도 산책하고, 교토의 신사도 보고, 사진도 찍고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은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투어를 하고 나서 소라니와 온천에서 저녁으로 맛있는 돈가스를 먹고 온천에 들어가서 피로를 풀었다. 온천욕을 하는 동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고 기분도 좋았다. 넷째 날에는 난바, 우메다에서 현지 기념품도 사고 거리 구경도 했다. 그리고 도톤보리 야간 보트도 탔다.

그렇게 넷째 날도 즐거운 하루를 즐겁게 관광하고 마지막 날 짐을 싸서 숙소에서 가까운 가이유칸 수족관을 관람했다. 수족관에 정말 많은 바다 생물들이 있었고, 신비로웠다. 그리고 다시 리무진 타고 간사이공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솔직히 가기 전에는 자유여행에 설레기도 했지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두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한 덕분인지 여행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해외에서 길을 찾는 것도 처음엔 긴장이 되었지만 한 번 해보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구글지도를 보며 일본 지하철도 찾아서 탔고, 심지어 일본 택시도 타보았다. 일본어를 잘하진 못했지만 번역어플을 사용하니 신기하게도 말이 통했다.

앞으로는 친구들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여행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나는 호산나대학 1학년 때 프로젝트 수업으로 강릉 기차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도 KTX를 예매하는 것부터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이동해서, 택시를 타고 바다를 가고 점심도 먹고 강릉 카페거리도 즐겼다. 그렇게 한 번 배우고 나니 여행 방법을 알게 되어 방학 때 친구들을 모아 내가 스스로 기차표를 끊고 다시 한번 강릉여행을 다녀왔었다.

해외여행은 강릉여행보다 준비가 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하고 나니 그때보다 훨씬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립심이 생겼다.

나는 졸업을 하면 친구들과 지금처럼 즐겁게 놀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워서 최대한 늦게 취업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월급을 모아서 친구들과 해외 자유여행을 또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이렇게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 준비과정부터 여행 기간 동안 애쓰신 교수님들께 정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관리번호	T-13-23-05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장애인식이야기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국립재활원장 강윤규
편집인 김상락, 한우주
발행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전화 / 02-901-1598
인쇄처 글월기획
전화 / 02-2268-8684

사전 승인없이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297-000736-01
국제표준간행물번호(ISBN) 978-89-6810-595-1 (13330)

모두를 위한 재활 · 삶을 바꾸는 재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장애인식이야기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비매품/무료
13330
9 788968 105951
ISBN 978-89-6810-595-1